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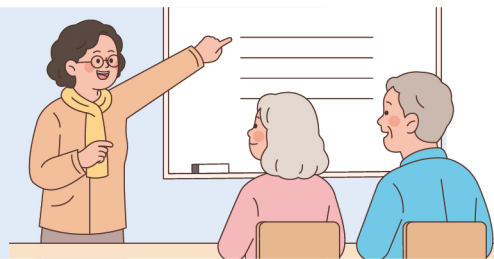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소식지 Vol.7

| 발간처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지역사회기관 방문... 증상과 응급 대처요령 교육 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지역 어르신 찾아간다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순환계통 질환의 사망률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¹⁾.

심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조기 증상 인지와 적절한 대처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과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³⁾.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과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7~8월 총 4회에 걸쳐 대전 지역 노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을 직접 찾아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증상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이번 교육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이해와 응급상황 대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증상과 대처 방법을 다시 한번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구급대원 친절도·적절한 응급 진료 및 처치 만족도 높아

대전 시민이 평가한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69.9점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에서는 2026년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대전 시민 중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1년간 대전 관내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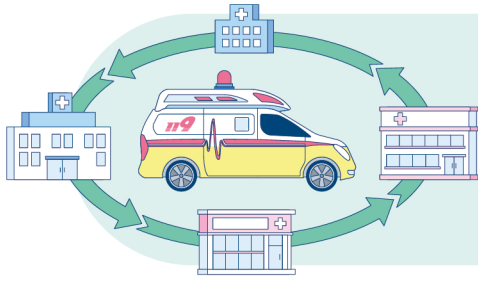
조사 결과, 대전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9.9점으로 나타났으며, 구급 이송 서비스와 응급실 진료 서비스 만족도 모두 2025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구급 이송 서비스에서는 '구급대원의 태도 및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응급실 진료 서비스에서는 '적절한 응급 진료 및 처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 2025.

2) Banharak S et al. Effects of health education applying role play on decision making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ituation among older adults in community. Sci Rep. 2024;14:19627.

3) Sim J, Shin C. Two stroke education programs designed for older adults. Geriatr Nurs. 2024;55:105-111.



‘대전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전면 재정비

골든타임을 지키는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의 첫 단추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체계적인 이송 체계 확립이다.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의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직접 지원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반면,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정비된 지침에 따라 사전 약속된 절차대로 이송하여 이송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¹⁾. 참고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광역 단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²⁾.

이번 대전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개정은 민선 9기 공약인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인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본격화하며,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대전형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역 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확산·적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대전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지역 내 응급의료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지역응급의료협의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 소방, 대전시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실무자 대상 공청회와 소방 현장 의견 조회를 별도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이송 현장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9월부터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추진」, 2026.

2) 보건복지부, 「지역 응급환자 전원 관제(管制)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 운영 개시」, 2024.

6분마다 이어지는 응급출동...응급상황은 가정에서 가장 많아

상반기 하루 평균 214건 출동... 중증응급환자 이송 증가



대전소방본부의 2026년 상반기 119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총 38,770건의 구급출동이 이뤄져 하루 평균 214건, 약 6분마다 한 번씩 구급대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 환자 수는 21,506명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4.7%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질병이 약 70%(14,98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사고부상, 교통사고보다 높은 비율로 119 이용이 응급질환 대응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발생 장소는 집이 65.6%로 가장 많았고, 도로 8.5%, 도로 외 교통지역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응급환자(심정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 외상)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8.8% 증가했다. 특히 심혈관질환은 943명으로 13.5%, 뇌혈관질환은 379명으로 13.4% 증가해 병원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중증응급환자 대응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본부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기반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합한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구급교육과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사례 환류를 통해 구급대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출처 : 대전소방본부 제공

8월부터 12월까지 구급대원 실습 교육 실시

실제 현장처럼 어렵게... 대전소방, 구급대원 대응력 강화



출처 : 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소방본부는 8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구급대원 307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 전문응급처치술' 교육을 진행한다.

어두운 환경과 비좁은 차량 내부 등 구급 현장의 어려운 여건에서 상황 판단 능력과 전문 응급처치 술기, 팀 단위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새벽 시간대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단독사고 환자의 심정지 상황을 가정해, 손전등과 헤드랜턴을 사용하고 시민의 목소리와 차량 경적 등 현장 요소를 재현한 팀 단위 시뮬레이션과 디브리핑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의 현장 대처 능력과 구급장비 활용 능력, 대원 간 협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제 응급실에 가도 되나요

대전 시민 A씨

응급실 또는 구급차 이용 경로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밤 10시경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전신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까지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어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또는 구급차 이용 중,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알레르기가 없었던 저에게 난생처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목이 붓는 것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119에 신고해도 되는지, 응급실로 가도 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응급실 또는 구급차 이용 중,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응급실에서 수납을 기다리던 중, 경증은 가까운 병원에, 중증은 대형병원으로 가라는 안내 문구를 보았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안내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다소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또는 구급차 이용 중, 도움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긍정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뒤로 중증환자가 내원하면서 응급실이 매우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안내를 도와주신 간호사분께서 주기적으로 호흡 상태를 확인해주시고, 증상이 심해지면 언제든지 바로 말해달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불안감이 많이 줄었고, 그런 세심한 배려가 특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가병원 응급실
B 간호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응급실 간호사로서 문진을 통해 병력을 청취하고 중증도를 분류한 후, 응급실 의료진과 소통하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던 환자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생사를 오가는 위중한 환자를 처치하는 상황에서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화를 내는 다른 환자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치가 중단되곤 했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시민의 이해가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응급실·구급차에서는 병력 청취와 활력징후(혈압, 호흡수 등) 측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처치를 결정하고, 피해야 할 약물이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하게 약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응급 환자는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 대기시간은 저희 의료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응급실이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국내 응급실은 접근성, 진단의 정확성, 처치 속도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진료과의 부재와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의 퇴사율도 높아지고 있어, 응급의료 수가 체계를 포함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①서늘한환경 유지 ②얼음팩 적용 ③안정 취하며 증상 관찰 ④응급 시 119 또는 응급실

알레르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자문위원: 가병원 응급실 B 간호사



최근 어떤 유형의 알레르기 환자를 자주 접하시나요?

동물 털이나 음식물, 페니실린계 항생제 및 해열진통제 등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벌이나 벌레에 물린 부위가 부어올라 내원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전신 발진, 소양감, 피부 부종 등의 증상을 보이며,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투여 후 1~2시간 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알레르기가 나타날 때 증상과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호흡곤란, 심계항진(빠르게 뛰는 심장박동), 저혈압,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동반되거나, 발진과 부종이 몸통에 그치지 않고 얼굴로 심하게 번지면서 목구멍 안쪽이 붓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 위험 신호로 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ана필락시스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체 없이 응급실 내원 또는 119 신고를 통해 신속히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환자에 대해 어떤 응급처치가 이뤄지나요?

응급 또는 쇼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가장 먼저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알레르기 원인과 병력을 확인합니다. 이후 의사 처방에 따라 정맥로를 확보하여 수액을 투여합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후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보조적으로 투여합니다. 초기 증상이 호전된 뒤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전도 모니터와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 변화를 확인하며 일정 시간 동안 경과를 관찰합니다.

알레르기 상황에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나요?

첫째, 따뜻한 환경에서는 혈관이 확장되어 알레르기 반응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발진 부위에는 수건으로 감싼 얼음팩을 적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호흡이 편하도록 상체를 세우고,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있다면 갑자기 일어서지 말고 누워 다리를 살짝 올린 자세를 유지합니다.

넷째, 과거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어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에피펜)를 소지한 환자라면, 사용법 카드를 함께 지참해 보호자나 목격자가 증상 발생 즉시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도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 추가 관찰과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이 붓거나 조이는 느낌, 호흡곤란, 어지럼증·저혈압·빈맥 같은 위험신호가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진행을 의심하고 스스로 이동하기보다 즉시 119에 신고해 이송 중 처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레르기 증상 시 해야 할 것

✓ 체온을 서늘하게 유지하기 • 많은 환자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기 • 체온이 높아지면 혈관 확장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촉진될 수 있어요	✓ 발진 부위에 차가운 얼음팩을 찌끼기 • 수건으로 감싼 얼음팩을 발진 부위에 찌끼기 • 통증을 예방하면서 증상 완화에 도움	✓ 호흡이 편하도록 상체 세운 자세 유지 • 배거나 후선을 이용해 상체를 세워 호흡을 편하게 하기	✓ 어지럼증·저혈압 증상 시 눕혀서 다리 올리기 • 어지럼증, 식은땀, 창백, 저혈압 등 발생하면 누워서 다리를 살짝 올린 자세 유지 •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순환 하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	---	---	--

알레르기 증상 시 하지 말아야 할 것

✗ 더운 환경 피하기 • 고온 환경은 혈관을 확장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 갑자기 일어나거나 걷지 않기 •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걷는 것은 위험해요 • 순환 하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 스스로 운전해서 응급실 가지 않기 • 아나필락시스 쇼크 위험 시 스스로 이동하지 마세요 • 119에 신고하여 이송 중에도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지 않기 • 고열, 부종, 호흡곤란, 호흡곤란 등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	---	---	--

★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에피펜)를 소지한 경우

사용법 카드를 함께 지참하여 목격자나 의료진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언제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나요?

구급차 이용 가능



한쪽 얼굴 마비



시야 좁아짐



호흡곤란



토혈/혈변

구급차 이용 불가능



감기



음주/만취



단순 타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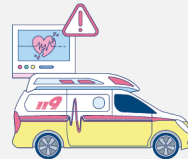
단순 찰과상



어떻게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나요?



중증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경증



가까운
병·의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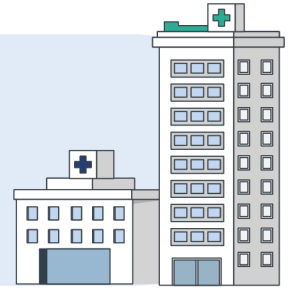
중증/경증
애매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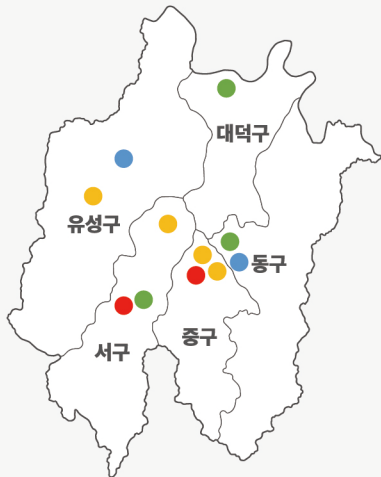
119 상담 이용

대전 응급의료/야간·휴일 진료 기관

한 눈에 보기



응급의료기관/시설



● 권역응급의료센터

-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환자 진료

● 지역응급의료기관

- 대전보훈병원, 대전한국병원, 대청병원
- 긴급하지만 생명의 위험이 낮은 환자 진료

● 지역응급의료센터

-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 진료

● 응급의료시설

-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대전화병원
- 긴급하지 않지만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진료

당직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당번제로 운영되는 병·의원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오늘의 당직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당번 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약국부터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PC웹에서만 이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하기

달빛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전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래 표 및 오른쪽 Q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6. 8. 7. 기준)



조회하기

	병원명	전화번호 (042)	평일	주말
1	김영소아청소년과의원	272-5119	08:30~23:00	(토)08:30~18:00 (일)09:00~18:00
2	코젤병원	829-0000	(월, 수, 금)08:00~22:00 (화, 목)08:00~23:00	(토)08:00~18:00 (일)09:00~18:00
3	탄방엠블병원	1899-2955	09:00~23:00	09:00~18:00
4	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605-0000	08:30~21:00	(토)08:30~18:00 (일)09:00~18:00
5	봉키병원	1522-6705	09:00~23:00	09:00~18:00
6	엠블병원	1899-3275	08:00~23:00	08:00~21:00
7	조이병원	485-2235	08:00~23:00	(토)08:00~18:00 (일)09:00~18:00
8	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221-7533	09:00~24:00	09:00~24:00

※ 진료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기관에 확인 후 방문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등